

# ‘완산공원 꽃동산’ 봄날의 추억 선사 만전

### 전주시 완산구, 교통·주차·환경 정비 등 종합 대책 추진... 4월 중순 겹벚꽃·철쭉 만개 예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는 전주의 봄철 대표 관광 명소인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주차·환경 정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완산공원 꽃동산은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는 전주의 대표적 봄꽃 명소로, 오는 4월 중순이면 겹벚꽃과 철쭉 등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올해 약 40만 명의 상춘객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관리와 주차 안내, 환경 정비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구는 개화 시기 동안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꽃동산 주변 주요 이면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차량 출입용 스티커를 배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주천서로 양방향 갓길주차장을 포함해 남부시장 전변주차장과 완산교~매곡교 노상주차장, 서화동 공영주차장,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 등 꽃동산 주변 총 1087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는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 꽃동산 인근 완산도서관과 치명자산, 녹두관, 완산초등학교 뒤편 공영주차장 등에 화장실을 개방하고, 이동식 화장실 2동을 꽃동산 인근에 추가 설치해 총 6개소의 화장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현장 관리 인력도 기존 18명에서 28명으로 대폭 증원 배치하고, 현장에서 교통 지도와 환경 정비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꽃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올해 꽃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전주 명품관광지 진흥사업’과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처음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올해 꽃동산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매곡교 방면 꽃동산 진입로 일대에서 매주 금·토요일 감성적인 버스킹 공연과 지역 특색이 담긴 플라마켓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완산공원 꽃동산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하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전주의 봄철 대표 관광 명소인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주차·환경 정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대우빌딩 3층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전주형 약선음식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연 협력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주형 약선음식’ 사업화 모색

### 특화사업 추진 위해 민·관·연 협력 관계기관 간담회 가처

전주시가 조선 3대 약령시(藥令市)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 식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7일 대우빌딩 3층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전주형 약선음식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연 협력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주형 약선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특화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농생명소재연구원, (재)전주시정연구원, 지역 농식품기업,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형 약선음식의 개념과 적용 범위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콘텐츠 활용 가능성 △교육·체험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향 △향후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약선음식이 단순한 한방 음식 개념을 넘어 계절 농산물과 전통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활형 건강식 콘텐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연계할 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전주형 약선음식의 사업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조문성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장은 “약선음식은 전주의 전통 식문화와 지역 농산물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완산구, 노후 도로·인도 집중 정비

### 안전한 통행환경 제공 위해 53억원 투입 추진

전주시 완산구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통행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 및 인도를 쾌적하게 정비키로 했다.

완산구는 이날부터 약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제대로 등 12개 노선의

도로와 은고을로 등 15개 노선의 인도 구간에 대한 재포장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신속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동절기인 지난 1·2월 중 해당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

진했으며, 설계가 완료된 구간부터 신속하게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민원 빈도수가 많은 포트홀 등 도로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순찰 및 부서접수 등을 통해 총 1199여 건(3월 13일 기준)을 접수했다.

구는 접수일 기준 평균 3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정

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단기업체와 계약 후 보수하고, 비교적 경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도로보수원 9명)을 투입해 신속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봄철을 맞아 노후 도로와 인도를 집중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도로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중독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든다

###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주생명과학고,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중독의 위험에 처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예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8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전주생명

과학고)에서 ‘2026년 중독예방 모범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중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4대 중독(음주, 마약, 도박, 인터넷) 고위험 학생을 조기 발견해 전



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올 한 해 등

안 전주생명과학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설 전시 및 캠페인 △맞춤형 중독예방교육 △조기선별검사 △참여형 특별활동 등 다각적인 중독예방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기는 각종 중독 유해 환경에 처음 노출되는 연령층으로, 이 시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만성적인 중독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후 처방이 아닌 선제적인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평생의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물고기마을 테마파크 조성 추진

### 이에프지와 관광·여가시설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여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운동목 전주 부시장과 류병덕 ㈜이에프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체공유 문화관광(물고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여가시설인 ‘물고기마을’ 테마파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에 협력하고, ㈜이에프지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이에프지는 시설 조성 이후 운영 인력 채용 시 전주시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운동목 전주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전주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